

여수공고 “이젠 전국 제패로 간다”

전남기능경기 출전 전 종목 사상 첫 금·은·동 싹쓸이
김동수·배영익·이평안·김민수·문의석·고동규 금메달

‘이젠 전국 제패다’
기술명문 여수공고가 최근 막을 내린 2019년 전남도 기능경기대회에서 금 5, 은 5, 동 5, 우수 4로 종합 1위를 달성하며 명실상부 최강자 자리를 이어갔다.
18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전남도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가 주관하는 전남도기능경기대회는 지역 최고의 기능·기술인을 가리는 자리다. 최근 전남 일원에서 진행돼 38개 직

종의 344명의 우수기능인들이 저마다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여수공고는 5개 종목에 출전했다. 용접에서 금, 은, 동, 우수, 옥내제어에서 금, 은, 동, 우수, CNC밀링에서 금, 은, 동, 우수 2, CNC선반에서 금, 은, 동, 모바일로봇에서 금, 은, 동을 휩쓸었다. 참가한 전 직종에서 금, 은, 동을 휩쓸며 학부모와 지역의 기대에 적극 부응했다.

출전종목별로 옥내제어는 김동수, 김운수, 박석진군이 각각 금, 은, 동을, 용접은 배영익, 한지민, 나민혁군이 금, 은, 동을, 모바일로봇은 이평안 김민수 군이 금, 이형빈 양재원군이 은, 김선우 배하준군이 동을 받았다.
CNC밀링은 문의석, 박정인, 이상균 군이 각각 금, 은, 동을, CNC선반은 고동규, 정승리, 주건웅군이 금, 은, 동을 거머쥐었다.
이 대회에 입상한 여수공고생들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정한 해당 직종 기능사 시험 면제의 혜택을 받고 올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남 대표로 출전한다.

전국 최우수기능학교에 주어지는 대통령 표창 및 금탑, 동탑을 수상한 여수공고는 전남기능경기대회에서 매해 종합 1위를 놓치지 않는 명문 특성화고이다.
지난해에도 금 5, 은 4, 동 4, 우수상 3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고 같은 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는 금 1, 은 2, 동 2, 우수 1, 장려 1로 전국 259개 참가기관 중 종합 7위(전남 1위)에 오르며 기술교육의 우수성을 과시했다.
이와 함께 여수공고는 NCS기반 취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과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드론·3D 프린팅, VR(가상현실), AR(확장현실) 분야를 적극 육성해 4



여수공고가 최근 막을 내린 '2019 전남도 기능경기 대회'에서 종합 1위를 달성했다.

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무한상상실 운영 및 메이커 스페이스사업 추진으로 창의력과 협업 능력을 갖춘 미래형 기술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대회 옥내제어종목에서 금, 은, 동메달을 싹쓸이한 제자들을 길러낸 여수공고 박치건 전기부장장은 “아이들의 실력도 좋고, 인성도 나무랄 데가 없다”면서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좋은 곳의 취업을 위해서도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용석 교장은 “팜과 열정으로 대회를 준비해 눈부신 성과를 거둔 지도교사 및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 있을 전국기능경기대회 역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학교의 명예는 물론 전남도교육청과 여수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조작 규탄

“이익 올리기에만 혈안 돼 불법 자행”
지역시민사회·정치권 등 한 목소리

지난 17일 환경부 조사결과 여수산단내 일부 대기업과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가 수년간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하고 허위성적서를 발행한 것과 관련해 여수지역 환경단체들과 정치권, 시민사회가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수지역 환경단체·정치권·시민사회가 18일 여수산단 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의 미세먼지 원인물질 허위성적을 발행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를 가졌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18일 오전 GS칼텍스와 LG화학,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을 잇따라 찾아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여수지역 뿐만 아니라 순천, 광양 등 인근지역 시민단체 회원들도 동참해 결의를 다졌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여수지역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기오염 수치 조작에 분노하고 여수국가산단과 정부는 여수시민을 위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여수시의회 역시 18일 여수산단 특별위원회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수산단 특위는 “우리 시민들은 이들 업체들이 저지른 불법 배출로 1군 발암물질 등 수십 종의 대기유해물질을 수년간 흡입하고 살아온 셈이며, 이들 기업들은 여수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오랫동안 갇아먹으면서 기업 이익 올리기에만 혈안이 돼 불법을 자행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수산단 특위는 이번에 적발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행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로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는 이번 사태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여수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그에 대한 책임감 있는 수습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산단 사업장에 대한 지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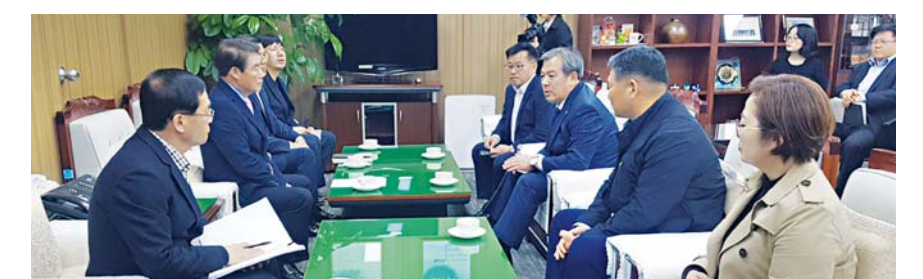
리권을 갖고 있는 전남도 등 행정당국은 수년간 조작을 일삼아 온 측정대행업체의 등록을 즉각 취소하고,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주 국회의원(여수갑)은 18일 오후 LG화학과 한화케미칼을 잇따라 방문, 실태파악과 동시에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번 대기오염물질 측정 조작과 관

련해 LG화학은 지난 17일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일에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염화비닐 배출과 관련해 해당 사안을 인지한 즉시 모든 저감조치를 취해 현재는 법적 기준치를 지키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관련 생산시설을 폐쇄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광양극단 백운무대 전남연극제 대상

광양연극협회 극단인 ‘백운무대’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제37회 전남 연극제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와 전남연극협회가 주최하고 순천시와 새한국연극협회 순천시지부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역 예선을 거쳐 광양, 순천, 목포, 나주 등 6개 시·군 극단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펼쳐졌다.
광양연극협회 극단 백운무대는 ‘경숙아, 경숙아버지’로 대회에 참가했다. 한국전쟁 무렵을 배경으로 가족을 내팽개치고 방랑하는 이기적인 아버지와 이런 아버지를 지켜보는 딸의 애증을 그린 작품을 선보여 흥겨우면서도

눈물 나는 삶을 깊이 있는 연기를 표현해 호평을 받았다.
백운무대는 단체상 대상과 함께 최우수연기상(정은빈, 경숙이 역), 우수연기상(문인심, 자아 역)과 무대기술상(최보람), 연출상(이계준), 특별상(한준화) 등 개인 부문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백운무대는 이번 대회 수상으로 오는 6월에 열리는 제4회 대한민국연극제에 전남 대표로 출전한다.
대상을 수상한 작품 ‘경숙아, 경숙아버지’는 20일부터 21일까지 백운아트홀에서 정기공연으로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동부취재본부=정상명 기자



유근기 곡성군수와 친환경 남품업체 대표 등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울산시 3개 구청을 방문하며 곡성군 친환경 쌀 판로 개척에 나섰다.

곡성 친환경 쌀 울산서 판로 개척 나서

유근기 곡성군수와 친환경 남품업체 대표, 관계공무원 등은 최근 울산시 3개 구청을 방문하며 곡성군 친환경 쌀 판로 개척에 나섰다. 18일 밝혔다.
울산시 북구청과 동구청은 이점부터 곡성군 친환경 쌀을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있다. 지난 해 곡성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은 울산 동구 16개 초등학교에 232톤, 북구 20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에 122톤이 공급됐다. 올해에는 약 400톤

이상의 친환경 쌀이 공급될 예정이다. 곡성군은 이번 방문을 통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곡성군 친환경 쌀을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기존 시장의 확실한 자리매김 외에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곡성군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질 좋은 친환경 쌀 공급을 약속하며 관심과 구매를 호소했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순천 남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추진

인제·풍덕동 일원 착공
순천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상습침수 지역이었던 인제·풍덕동 일원 침수예방을 위한 남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순천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를 거쳐 국비 118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37억원을 확보해 도시계획 인가, 건설기술 심의,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8일 착공식을 가졌다.
착공식에는 지역주민, 공사관계자, 감리단 등 150여명이 참석했고 사업개

요와 경과보고, 기념사, 안전다짐, 사업 시작을 의미하는 착공 퍼포먼스, 공사 참여 기술자 격려순으로 진행됐다.
이 사업은 순천시 인제동 375-5번지 일원 3,118㎡의 부지에 지하 저류용량 2만2,400㎥의 저류지를 조성한다. 저류지 조성후에는 남정동 지역 165ha의 집중호우때 상습적으로 발생하던 도심 침수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취재본부=박경성 기자



순천 남정지구 조감도.

클릭! 고흥 소식



보성 '충무공학당' 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성군은 18일부터 오는 6월까지 방진관에서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화, 목요일 ‘이순신 장군은 추석에 무얼 했을까?’라는 주제로 ‘충무공학당’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충무공 학당에서는 이순신 장군 리더십과 휴머니즘을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강의, 현장탐방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동부취재본부=백종두 기자



구례 1388청소년지원단 정기회의
구례군은 최근 구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실에서 제1회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1388 청소년지원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민간의 자발적 조직으로 지역의 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구례군은 15명이 활동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



고흥 귀농·귀촌 피해사례 예방 홍보
고흥군은 최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농정착기술 교육을 통해 귀농·귀촌 피해사례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귀농에 필요한 법률, 세무, 시설과재무 재배기술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을 이수한 도시민에게는 50시간의 귀농교육시간이 인정된다.
/동부취재본부=진중언 기자